



경남구 삼성로 720 (홈페이지: www.cdspd.org)  
 사무실: 02)3447-0750~1 팩스: 02)3447-0752

주 임 신 부 : 김민수(이냐시오)  
 1 보좌신부 : 김경영(영주바오로)  
 2 보좌신부 : 김세영(파비아노)  
 전 교 수 녀 : 김영희(비앙카)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박선옥(에드워드)  
 사 목 회 장 : 장병철(율리아노)  
 연 령 회 장 : ☎ 010-5411-5837

주일미사	토요일 15시(초등부), 토요 저녁미사 : 19시 / 주일 : 6시, 9시, 11시(교중미사), 15시(중고등부), 17시, 19시		
평일미사	월 ~ 토 : 6시 / 화 ~ 금 : 10시 / 화 ~ 금 : 19시	고해성사	주 일 미사 전 30분
봉 성 체	매월 둘째 목요일 10시 미사 후		평 일 미사 전 15분
관면흔배	매월 둘째 토요일 17시	유아세례	출수 달 첫째 토요일 17시

**소 식**

금주의 성경 암송

“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 
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.  
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 
 주님의 것입니다.”  
 (로마 14,8)

◎ 사제성화의 날

\* 예수 성심 대축일(6월 23일 금요일)은 사제 성화의 날로 이 날은 모든 교회가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. 사제들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. (\* 6월 23일(금)은 사제성화의 날 행사관계로 본당 오전 10시 미사는 없습니다.)

◎ 예비신자 모집(주일반, 화요일)

\* 환영식: 6월 11일(오늘) 오후 12시 30분, 1층 프란치스코 홀  
 \* 예비신자 반 편성

평일반(화요일)	오후 8시, 1층 지혜방
주일반(일요일)	오전 9시 20분, 1층 지혜방

◎ 어르신 방문교리 신청 및 봉사자 모집

\*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환자분들 대상으로 방문 교리를 접수받습니다.  
 \* 문의: 김 요안나 (010-3724-1607)

◎ 제 33차 엠마오 무의도 트레킹

\* 일시: 6월 17일(토) 오전 7시 30분, 성당출발  
 \* 장소: 인천 무의도 4시간 트레킹  
 \* 준비물: 간편 복장, 운동화, 회비(4만 5천원)  
 \* 문의: 전 도미니카 (010-3297-6738)

◎ 자전거 동호회 라이딩

\* 일시: 6월 17일(토) 오전 7시 30분, 성당출발  
 \* 장소: 다산 유적지 왕복 64Km  
           (오후 5시, 압구정 나들목 도착)  
 \* 문의: 안 요셉 (010-3000-3506)

◎ 성모 마리아 발현 100주년 기념 영화 상영

\* 파티마 성모 마리아 발현 100주년을 맞이하여 본당에서 ‘파티마의 기적’ 영화를 상영합니다.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 
 \* 일시: 6월 29일(목) 오후 8시, 2층 대성전  
 ◎ 영상 미디어팀 봉사자 모집  
 \* 본당 행사와 소개를 위한 영상 촬영 및 편집을 도와주실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  
 \* 문의: 송 라파엘 (010-3161-4511)

◎ 제 34차 성지순례

\* 일시: 6월 24일(토) 오전 6시 40분, 성당 출발  
 \* 순례지: 금광리 공소, 강릉관아, 양양 성당, 곰실 공소, 죽림동 성당  
 \* 준비물: 순례책, 스카프, 회비(3만 5천원, 조중식 제공)  
 \* 문의: 곽 마리아 (010-3238-0756)

◎ 청담동 성당 청년 여름 캠프 (충남 태안)

\* ‘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.(요한 17,21)’말씀을 주제로 떠납니다.  
 \* 일시: 7월 7일(금)~7월 9일(주일), 2박 3일  
 \* 문의: 이 요안나 (010-9678-7876)

◎ 레지오 단원 모집

\* 본당 레지오 마리에 단원을 모집합니다. 평소 레지오 마리에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  
 \* 대상: 청담동교우 남성신자, 직장 여성신자, 청년, 청소년(초·중·고)  
 \* 문의: 권 마르시알 (010-8786-1981)

**모 임**

\* 6월 12일(월): 성령기도회(강사: 함옥숙 테레사)  
 \* 6월 13일(화): 여성 Cu.  
 \* 6월 14일(수): 여성구역장회의/ 성모회/ 시몬회  
 \* 6월 15일(목): 반주단  
 \* 6월 16일(금): 남성 성체조배회

성가번호 입 당: 81      예물준비: 511, 512      성 체: 182, 178, 179      파 견: 83

화 답 송

세 세 대 대 에 찬 송 과 영 광 을 받 으 소 서

### 하늘나라에 계신 박이문 선생님

“인간은 누구나 길 위에 서 있다. 우리는 슬한 길들을 걸으며 우연과 운명의 무늬를 삶 속에 새길 뿐이다.”

올해 선종하신 학자, 박이문의 글이다. 그분은 생을 마감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양의 책을 싸들고 갔다. 우연히 본명이 박인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분을 알아보고 눈시울을 붉어졌다는 후문도 들린다.

그 분은 병원에서 1년여 동안 눈 감기까지 어떤 책을 더 읽을 요량으로 그 책을 가지고 들어갔을까. 당신 자신이 두꺼운 책이라는 것을 모르실까. 학문과 종교와 예술에 대해 파벌없는 단독자로 불리울 만큼 자유로운 사고를 하셨고 누구를 억압하지도 않고 누구를 지배하지도 않았다는 평을 들었다. 그가 남겨두고 간 쓴소리를 옮겨보자.

“학자들의 저서보다 연구소가 더 많고, 학문적 연구보다 행사와 학회가 더 많고, 학회보다 탐구의 장이 아니라 사교장이 되어가고 있다.”

모든 전문기관에 대해 일침을 가한 문장이며 눈 뜨라고 일러주는 말임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간다. 나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백번도 천번도 더 다짐을 하지만, 내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고 살 수가 없고 간섭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열정의 기질 때문에 수시로 흔들리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선다.

보이는 길, 보이지 않는 길, 다갈래 길 위에서 늘 선택의 자유를 통해 이리저리 엮이면서 우리의 역사를 짓고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.

요즈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의 학자나 예술가, 작가나 정치인들이 자꾸 지상에서 사라져가는 바람에 등이 서늘할 때가 더러 있다. 무엇을 하다가 보면 궁극에 무엇이 될 것인지 생각하면 가치전도가 일어난다. 방향만 정해놓고 그저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충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.

내가 15년 동안 다니는 장애복지관의 관장님이 일반성당으로 발령을 받고 나가셨다. 몇 년 동안 못뵈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이름을 기억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앞세운다.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질문하게 되었다고 말할 때 나는 생각했다. ‘아하!’ 이따금 속말을 나누던 날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잠시나마 딱딱하던 시간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본당과 복지관의 차이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 조금 난감하셨다는 이야기다. 단 한 사람에게라도 긍정적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나 싶었다고 마음을 열어 비치셨다. 인사도 없이 헤어져서 늘 미안하고 서운했는데 마음에 두고 살면서 기도를 엮었더니 만나자는 날이 왔다. 바로 5월에. 5월은 그런 달이다.

온 삶을 진리에 맡기면 닳은 코드를 가진 인연들이 그 길 위에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다양한 믿음의 역사를 짓는다. 그게 우리 신앙인의 역사다.

“주님, 제가 든 목주가 목주알이 아니라 목주기도 정신으로 무장되게 하소서.”

< 문화홍보분과 위원, 1구역 5반, 오정순 알비나 >

**♣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**

봉헌 예물		교무금 납부 현황		감사 헌금 (5/31~ 6/6)			
주님 송천 대축일	13,926,740	총 세대수	3,834	김 소화테레사	50,000	정 돈보스코	30,000
교무금	20,005,000	총 납부 세대	1,158	나 베로니카	300,000	익 명	100,000
		지난주 납부 세대	14	김 엘리사벳	200,000	현종용	20,000
성소 후원금 (7건)	75,000	총 납부율(%)	30.6	합 계: 700,000원			